

## 제주지역 대학 통일교육의 방향 : 기본 전제 및 과제

김남수\*

###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V. 대학 통일교육의 기본전제 및 과제 |
| II. 통일교육의 의미      | V. 마무리                 |
| III. 제주지역 통일교육 실태 | <참고문헌>                 |

### < 국문 초록 >

본 논문은 그 동안 시대변천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통일교육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1950년대에 ‘반공교육’, ‘통일안보교육’, ‘통일교육’등 명칭이 다양하게 바뀌면서 통일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왔고, 1990년대 들어 냉전체제의 해체와 독일통일, 동구권의 붕괴 및 구소련 체제의 변화 등 국제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통일교육은 ‘반공교육’에서 통일안보교육’으로, 2000년대 이후에는 남북한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 등장한 통일방안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기본 이념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주지역내 통일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제주지역 대학의 통일교육의 과제 및 방향으로 첫째, 통일교육의 내실화: 대학 전공과의 융·복합 교과목 편성 둘째, 통일교육의 내실화2: 교과목의 교양필수화 및 확대 셋째, 통일교육의 현장 실습화 강화 넷째, 지역 학생 대상 통일체험 프로그램의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통일교육, 신뢰프로세스, 대학통일교육의 과제 및 방향

\*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 I. 머리말

우리 나라의 통일교육은 1950년 6·25 전쟁을 겪고 남북 분단 이후 ‘반공교육’, ‘통일안보교육’, ‘통일교육’등 명칭이 다양하게 바뀌면서 통일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 냉전체제의 해체와 독일통일, 동구권의 붕괴 및 구소련 체제의 변화 등 국제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통일교육의 내용도 ‘반공교육’에서 통일안보교육’으로 변해 왔다. 2000년대 이후에는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남북한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크게 변화되었다. 이른바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이다<sup>1)</sup>

박근혜 정부 들어 등장한 통일방안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기본 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하는 새로운 대북정책이다.<sup>2)</sup> 신뢰프로세스의 추진목표로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정착, 그리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고 추진원칙으로 균형있는 접근, 진화하는 대북정책,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추진과제로 크게 4가지 과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신뢰형성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둘째,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 셋째, 통일 인프라 강화 넷째,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의 선순환 모색 박근혜 대통령은 금년 신년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통일대박론’을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독일 드레스덴 선언<sup>3)</sup>, 8,15 광복절 통일방안<sup>4)</sup> 제시를 통해 우리 사회는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 및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무르익은 상황을 맞이

1) 박광기외(20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통일연구원.

2) 통일부(2014). 2014 통일백서.

3) 드레스덴 선언 내용은 첫째,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둘째,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셋째,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이다. 또한, 3대 제안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사무소’설치를 제안하였다.

4) 8,15 광복절 통일방안은 지난 3월 독일 방문시 제시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드레스덴 구상)’을 실천으로 옮기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남북의 소통창구 마련과 상호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의 융합, 한반도 생태계 복원과 환경협력 통로 마련, 남북 하천과 농업 및 산림 공동 관리와 대북 개발 협력 사업 추진, 수자원 공동이용과 산림녹화 연계 방안과 북한 지하자원의 호혜적 이용, 문화유산 발굴·보존사업(2015년)과 광복 70주년 기념 문화사업의 공동 추진, 언어·문화·역사·체육 등 대북 교류 협력사업 모색 등이다.

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제주지역내 통일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제주지역 대학의 통일교육의 과제 및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II. 통일교육의 의미

### 1. 통일교육의 중요성

통일교육은 헌법정신과 1999년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에 기초하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sup>5)</sup> 따라서 통일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통일교육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6)</sup> 첫째, 통일에 관한 교육이다. 통일에 관한 교육은 통일의 개념,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 통일의 중요성, 통일에 따른 실익, 통일의 기본구상, 통일의 미래상 등과 같은 통일의 개념적 이해와 규범적인 내용들로 ‘미래지향적 통일관’에 해당될 수 있다. 둘째, 통일을 위한 교육이다. 통일을 위한 교육은 통일정책, 통일을 위한 방안, 통일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변화상황에 대한 이해, 국가안보,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한반도 국제관계, 북한의 현실에 대한 이해,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 등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균형있는 대북관’ 및 건전한 안보관’에 해당될 수 있다. 셋째, 통일 이후 교육이다. 통일 이후 교육은 남북한 통일 이후 통일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준비하고 해결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다. 결국 통일교육은 통일에 관한 교육을 기초로 통일을 대비하여 통일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방안, 그리고 통일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통일 이후 통일한국이 당면할 과제와 사회 통합을 비롯한 정치통합, 제도통합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sup>7)</su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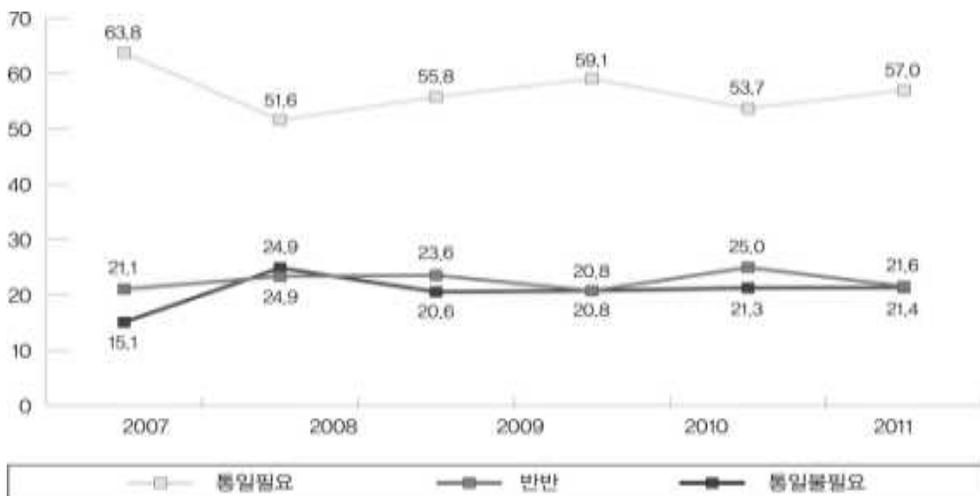
5) 통일부(2013). 2013 통일백서. p.200.

6) 박광기(2012).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통일부 통일교육원. p.10.

## 2. 통일에 대한 인식

여기에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통일인식에 대한 조사결과<sup>8)</sup>를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통일의 당위성면에서 보면, 과연 '통일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57.0%(매우 필요 26.8%, 약간 필요 30.3%)로 였고, '반반 또는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21.6%, '별로 또는 전혀 필요없다'는 응답은 21.4%였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절반을 넘기기는 하지만, 통일을 압도적 다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연도별로 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007년 6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2008년 51.6%로 12.6% 하락 이후, 2009년 55.8%, 2010년 53.7%, 2011년 57.0%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2-1〉 통일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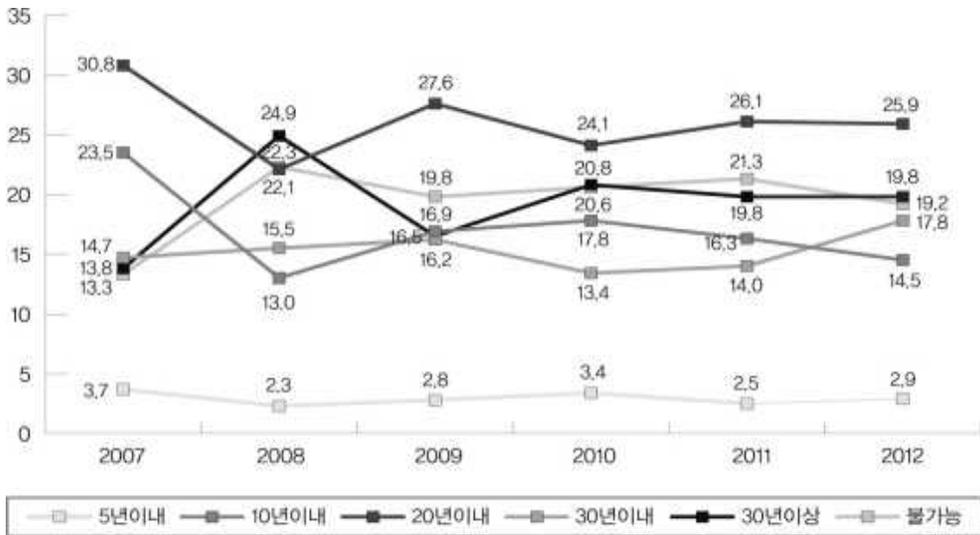


7) 박광기(2007). 새로운 학교통일교육의 방향성 제고: 통일교육에서 통합교육으로. 시민교육연구. 한국사회과학교육학회. 제39권 제3호. pp.101~119.

8) 박명규외(2013). 2012 통일인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참조함. 본 조사는 2012년 7월 5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되었고, 조사의 모집단은 전국 16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모두 1,200명을 유효표본으로 실시하였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고 ±2.8%이다. 표본추출은 다단계확화무작위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을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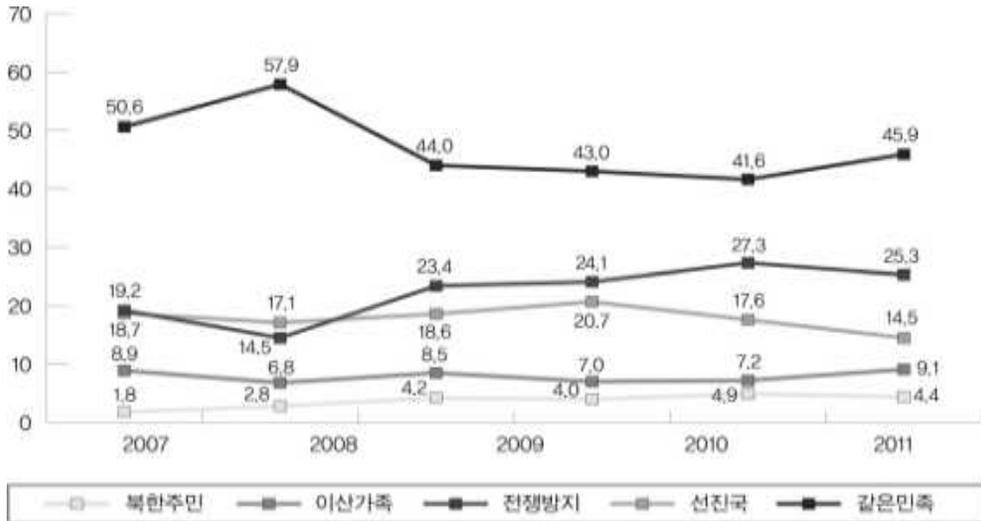
둘째, 통일 가능 시기에서 ‘통일이 언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대체로 통일을 먼 훗날의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2012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5년, 10년 이내’라는 응답은 각각 2.9%, 14.5%였고, 중장기인 ‘20년, 30년 이내’로 보는 의견은 각각 25.9%, 17.8%였으며, ‘30년 이상’, ‘불가능’이라는 의견도 각각 19.8%, 19.2%로 높게 나타났다.

〈표 2-2〉 통일의 시기



셋째, 통일의 이유에서는 조사결과에 의하면,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응답이 45.9%로 가장 높았다. 연도별로 보면 2007년 50.6% → 2008년 57.9% → 2009년 44.0% → 2010년 43.0% → 2011년 41.6% → 2012년 45.9%로 변화했다.

〈표 2-3〉 통일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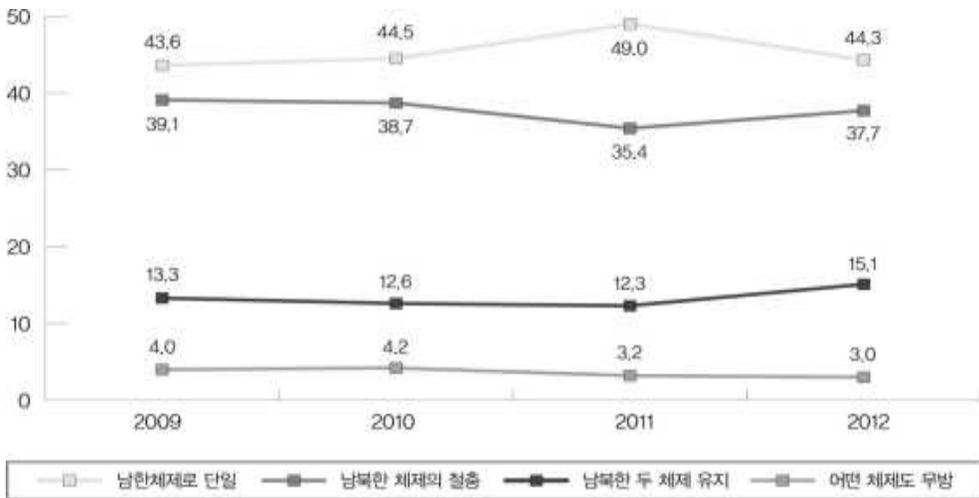
이런 결과는 천안함사건과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충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화되면서 다시 민족 동질성에 대한 관심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라는 응답은 25.3%로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지난 2년에 비해서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북한의 권력 승계가 예상보다 안정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안보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의 비율이 하락 때문으로 보인다. 이 외에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14.5%, ‘이산가족 고통 해소’는 9.1%,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은 4.4%로 나타났다.

넷째, 희망하는 통일한국의 체제에서 대하여 조사결과에 의하면, ‘통일한국이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는 응답은 37.7%로, ‘통일이후에도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는 응답은 15.1%로 나타났다.

그리고, KBS·한국 CNR의 통일인식 조사<sup>9)</sup>에 의하면 첫째, 통일대박에 대한 공감도에 대하여 현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대박’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긍정적 답변 61.5%(매우공감 14.7%, 대체로 공감 46.8%), 부정적 답변 30.2%(대체로 공감 안해 22.6%, 매우 공감 안해 7.6%), 모르겠다 8.3%로 나타났다. 둘째, 현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하여‘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질문에서는 찬성 답변 68.9%(적극 찬성 19.9%, 어느 정도 찬성 49.0%), 반대 답변 29.0%(대체로 반대 22.2%, 적극 반대 6.8%), 모르겠다 2.1%로 나타났다.

〈표 2-4〉 통일한국의 체제



셋째,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하여‘금강산 관광사업’재개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조건부 재개 64.1%, 계속 중단 18.2%, 즉시 재개 17.6%로 나타났다. 넷째, 북 김정은 정권 호감도에 대하여‘북 김정은 정권 호감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부정적 답변 74.7% (매우 반감 51.2%, 어느 정도 반감 23.5%), 그저 그렇다 22.4%, 긍정적 답변 2.8%(어느 정도 호감 2.2%, 매우 호감 0.6%)로 나타났다.

9) 본 조사는 KBS와 한국 CNR 조사기관에서 실시되었다. 조사는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응답률은 11.5%이다. 조사 기간은 2014년 8월5일에서 7일까지 조사방법은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병행하여 이루졌고, 오차범위는 ±3.1p(95% 신뢰수준)이다,

### Ⅲ. 제주지역 통일교육 실태

제주지역에서는 다양한 기관 및 단체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제주통일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온 통일교육의 실태를 언급하고자 한다.

#### 1. 제주통일교육센터의 설립

제주통일교육센터는 통일부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2항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시설”에 근거하여 2009년에 설립하였다. 따라서 제주지역통일교육센터는 지역사회에 통일교육 기회 및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구축하여 지역통일교육 사업추진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며, 미래 통일에 대비하는 통일교육의 위상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2015년 현재 지역통일교육센터에는 통일교육위원협의회 14개소, 대학연구소(협의회 포함) 4개소, 통일교육 단체 1개소 등 19개소가 지정·운영하고 있다.<표1>

<표 3-1> 지역통일교육센터 현황

구역	지역센터명	구역	지역센터명
수도권(3)	서울	영남(6)	부산
	인천		대구
	경기		울산
강원(2)	강원		경남
	강원동부		경북
충청(3)	대전		경북 남부
	충남	광주	
	충북	전남	
제주	제주	호남(3)	전북
대학	대통합		합계

## 2. 제주지역통일센터의 주요 사업

제주지역통일센터는 그 동안 통일부에서 지정된 이후로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제주지역내 학생(초등, 중등, 고등, 대학)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본 사업과 자율사업, 공모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여기에서는 최근 3개년 제주지역내 통일교육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2012년<sup>10)</sup>

첫째, 기본 사업으로 ‘찾아가는 통일교육(시민)<sup>11)</sup>, 찾아가는 통일교육(학교)<sup>12)</sup>, 지역협의회 발대식 및 상반기 통일교육위원 워크숍<sup>13)</sup>, 제주도 초등학생 통일기원 현장체험활동<sup>14)</sup>, 제주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평가회 및 하반기 통일교육위원 워크숍<sup>15)</sup> 등이 개최하였으며, 둘째, 자율 사업으로 ‘제주도 초중등교장 초청 통일안보교육 연찬회<sup>16)</sup>, 찾아가는 통일교육 강의모듈 워크숍<sup>17)</sup>, 대학생 통일이해 토크 콘서트<sup>18)</sup>, 제주도 중고등학생 통일

10) 2012 제주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평가회 및 통일교육위원 워크숍. 내부자료.

11) 찾아가는 통일교육(시민)은 제주지역 도민들을 대상으로 최근 남북한 관계 현안 및 대북정책의 정당성과, 통일외식 함양 및 통일의 길 모색에 대한 강의로 이루어졌다.

12) 찾아가는 통일교육(학교)은 제주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최근 북한의 실상과 남북한 생활 비교, 평화통일의 방향과 과제 모색에 대한 강의로 이루어졌다.

13) 지역협의회 발대식 및 상반기 통일교육위원 워크숍은 제주지역 통일교육위원을 대상으로 제주지역협의회 발대식과, 제주지역협의회 운영 방침 및 프로그램 설명 등 통일교육 사업에 관한 정보 공유 및 협조 요청, 통일교육 사업 성과 안내 및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14) 제주도 초등학생 통일기원 현장체험활동은 제주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주지역 초등통일교육연구회와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해 초등학교 통일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통일시대를 열어 나갈 초등학생들에게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고 통일교육 활성화의 장을 마련하였다.

15) 제주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평가회 및 하반기 통일교육위원 워크숍은 사업성과 공유 및 평가,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의견 수렴 및 방안을 모색하였다.

16) 제주도 초중등교장 초청 통일안보교육 연찬회는 제주지역 교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통일 교육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켰다.

17) 찾아가는 통일교육 강의 모듈 워크숍은 통일교육전문가 및 통일교육위원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학교통일교육의 의의와 방향을 탐색하고 통일교육 콘텐츠개발과 교수법에 관한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18) 대학생 통일이해 토크 콘서트는 제주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통일전문가 및 탈북민을 초청하여 북한경제 및 문화, 대학생들에 대한 실상과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퀴즈대회<sup>19)</sup>, 통일문제 전문가 워크숍<sup>20)</sup>, 제주도 초중고 통일교육 담당교사 연찬회<sup>21)</sup>, 지역통일교육 유관기관 거버넌스 포럼<sup>22)</sup>, 통일문화 한마당<sup>23)</sup>, 통일동화 구연대회<sup>24)</sup>’를 개최하였다.

## 나. 2013년<sup>25)</sup>

첫째, 기본 사업으로 ‘찾아가는 통일교육(시민)<sup>26)</sup>, 찾아가는 통일교육(학교)<sup>27)</sup>, 상반기 통일교육위원 워크숍<sup>28)</sup>, 전도 중고등학생 통일·평화 기원 현장체험활동<sup>29)</sup>, 제주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평가회 및 하반기 통일교육위원 워크숍<sup>30)</sup>’를 개최하였으며, 둘째, 자율 사업으로 ‘찾아가는 통일교육 강의모듈 워크숍<sup>31)</sup>, 전도 초중등교장 초청 통일안보 교육 연

- 
- 19) 제주도 중고등학생 통일퀴즈대회는 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통일퀴즈대회를 통해 통일교육의 성과를 점검하고 통일의식을 고취시켰다.
  - 20) 통일문제 전문가 워크숍은 통일과 관련된 현안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통일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콘텐츠와 방법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21) 제주도 초중고 통일교육 담당교사 연찬회는 제주지역 초중고 통일교육 담당교사 및 통일교육위원을 대상으로 학교 통일교육의 새 방향 모색, 청소년 통일의식 강화를 위한 의견 교환과 통일교육의 질적 향상을 탐구하였다.
  - 22) 지역통일교육 유관기관 거버넌스 포럼은 유관조직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통일교육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지역사회에 적용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23) 통일문화 한마당은 제주지역 도민을 대상으로 분단으로 인해 자유와 인권이 억압받고 가난 속에 힘들어하는 북한주민들의 삶을 연상하고 평화와 통일을 상징하는 연주와 탈북 음악가의 북한 주민의 살아가는 이야기, 남한의 음악가의 통일염원을 통해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24) 통일동화 구연대회는 제주지역 유아,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남북한의 동화 구연대회를 통한 민족문화 및 상대방에 대한 이해증진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통일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다.
  - 25) 2013 제주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평가회 및 통일교육위원 워크숍. 내부자료.
  - 26) 찾아가는 통일교육(시민)은 최근 남북한 관계 현안 및 대북정책의 정당성, 통일의식 함양 및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 27) 찾아가는 통일교육(학교)은 제주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최근 북한의 실상과 남북한 생활 비교, 바람직한 통일관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다.
  - 28) 상반기 통일교육위원 워크숍은 제주지역협의회의 운영방침 및 프로그램 설명 등 통일교육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조 요청, 통일교육 사업 성과 및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29) 전도 중고등학생 통일·평화 기원 현장체험활동은 역사적 상흔의 흔적 답사와 호국안보와 평화애호 사상을 다지고 현장체험을 통해 중고등학생들의 역사, 안보, 통일의식 제고를 마련하였다.
  - 30) 제주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평가회 및 하반기 통일교육위원 워크숍은 사업성과 공유 및 평가,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의견 수렴,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교훈 도출 및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31) 찾아가는 통일교육 강의모듈 워크숍은 지역사회와 학교통일교육의 의의와 방향을 모색하고 통일교육 콘

찬회<sup>32)</sup>, 지역통일교육 유관기관 거버넌스 포럼<sup>33)</sup>, 대학생 통일이해 토크 콘서트<sup>34)</sup>, 제주 지역 대학생 통일동아리 통일의식 함양 캠프<sup>35)</sup>, 전도 중고등학생 통일퀴즈대회<sup>36)</sup>, 초등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sup>37)</sup>, 통일문제 전문가 워크숍<sup>38)</sup>, 전도 초중고 통일교육 담당교사 연찬회<sup>39)</sup>, 통일교육 담당교수 및 예비교사 합동 워크숍<sup>40)</sup>, 통일문화 한마당<sup>41)</sup>, 한라에서의 남북어린이 만남, 통일동화 구연대회<sup>42)</sup>’를 개최하였다.

텐츠개발과 교수법에 관한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 32) 전도 초중등교장 초청 통일안보 교육 연찬회는 학교통일교육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33) 지역통일교육 유관기관 거버넌스 포럼은 유관조직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통일교육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지역사회에 적용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34) 대학생 통일이해 콘서트는 통일전문가 및 탈북민을 초청하여 북한체제 및 문화, 대학생활에 대한 실상 파악과,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35) 제주지역 대학생 통일동아리 통일의식 함양 캠프는 미래 통일의 주역인 제주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성된 통일동아리(호피스) 회원들의 통일환경의 변화와 신입회원들의 가입에 따라 통일의식 함양과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기 위한 1박 2일의 통일캠프이다.
- 36) 전도 중고등학생 통일퀴즈대회는 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통일퀴즈대회를 통해 통일교육의 성과를 점검하고 통일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37) 초등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은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 실천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북한사회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급변하는 통일환경의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과,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초중통일교육연구회 회원들의 참여를 통해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통합적 논의의 장을 제공하였다.
- 38) 통일문제 전문가 워크숍은 통일교육위 전문가를 초청하여 통일교육위원들의 통일과 관련 현안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통일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39) 전도 초중고 통일공공 담당교사 연찬회는 학교 통일교육의 새 방향 모색과, 청소년 통일의식 강화를 위한 의견교환 그리고 통일교육의 질적 향상을 탐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40) 통일교육 담당교수 및 예비교사 합동 워크숍은 미래 통일교과 담당 예비교사들과 대학 통일교육 담당교수들의 초중등 학생의 통일교육 필요성과 통일교육의 방법 및 내용, 미래 학교통일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41) 통일문화한마당은 분단으로 인해 자유와 인권이 억압받고 가난 속에 힘들어 하는 북한주민들의 삶을 연상하고 평화와 통일을 상징하는 연주와 탈북 음악가의 북한 주민의 살아가는 이야기, 남한의 음악가의 통일염원을 통해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42) 한라에서의 남북어린이 만남은 탈북 아동·청소년들의 배움터인 삼흥학교(서울 소재) 어린이 및 교사를 초청하고, 제주문화 익히기, 통일 염원 나누기 등을 통해 탈북 교사 및 어린이들의 동포에 체감 및 제주지역 교사 및 어린이들의 북한 실상 이해와 통일의식을 제고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다. 2015년<sup>43)</sup>

첫째, 기본 사업으로 ‘통일문화아카데미(열린통일강좌)<sup>44)</sup>, 통일순회강좌<sup>45)</sup>, 통일체험학습<sup>46)</sup>, 전문가 포럼 및 워크숍<sup>47)</sup>, 통일교육위원워크숍<sup>48)</sup>’ 등을 개최하였으며, 둘째, 공모 사업으로 ‘노래로, 통일로, 미래로! 제주청소년 통일하모니 한마당<sup>49)</sup>’을 개최하였다.

- 
- 43) 2015년 상반기 통일교육위원 워크숍 및 제주지역 통일교육 거버넌스, 내부자료.
- 44) 통일문화아카데미(열린통일강좌)에는 대학생통일이해토크콘서트와 전도 초중고 통일교육 담당교사연찬회로 구분하여 시행하였다. 대학생통일이해토크콘서트는 제주지역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전문가 및 탈북민을 초청하여 북한 체제 및 문화, 대학생활에 대한 실상을 이해하고, 북한 및 통일문제대한 올바른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전도 초중고 통일교육 담당교사연찬회는 도내 초중등 담당교사들로 하여금 현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전문가 및 정부 고위관계자 초청 형식을 진행되었고, 청소년 통일외식 강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통일교육 관련 정보의 제공,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 및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 45) 통일순회강좌는 도내 초중고대학생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최근 북한의 실상과 남북한 생활 문화를 비교하고, 정부의 평화 통일정책과 과제, 인식제고, 바람직한 통일문화관 형성의 계기가 되었다.
- 46) 통일체험학습에는 통일염원청소년한마당축제와 통일동화구연대회로 구분하여 시행하였다. 통일염원청소년한마당축제는 도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통일퀴즈대회 및 통일그리기, 탈북자 초청 통일체험마당 등을 통해 학생들의 통일외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통일동화구연대회는 도내 유아 및 아동, 성인들을 대상으로 남북한의 동화 구연대회를 통한 민족문화 및 상대방에 대한 이해증진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통일준비에 적극 나서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 47) 전문가 포럼 및 워크숍에는 초등통일교육활성화를 위한 제주지역교원세미나와 통일문제 전문가워크숍이 시행되었다. 초등통일교육활성화를 위한 제주지역 세미나는 도내 초등통일교육연구회 회원들의 올바른 통일관 형성 및 현장에서 제기되는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통합적 논의의 장을 제공하였다. 통일문제전문가워크숍은 도내 통일문제전문가 및 교수, 통일교육위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과 관련된 현안문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정부의 정책자료 발굴의 계기와 제주지역 통일관련 전문가 및 교수를 비롯 통일교육위원, 평통위원 등이 참여한 통일공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 48) 통일교육위원워크숍에는 상반기 통일교육위원 워크숍 및 제주지역통일교육거버넌스 워크숍과 하반기 통일교육위원 워크숍 및 사업평가회로 구분하여 시행되었다. 상반기 통일교육위원 워크숍 및 제주지역통일교육거버넌스 워크숍에서는 통일교육위원 및 거버넌스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협조 요청, 제주지역 통일교육 유관단체, 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하반기 통일교육위원 워크숍 및 사업평가회에서는 2015년 사업성과 공유 및 평가,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의견 수렴과 2016년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교훈, 도출 및 방안을 모색하였다.
- 49) 공모사업으로 ‘노래로, 통일로, 미래로! 제주청소년 통일하모니 한마당’에서는 제1회 학생 그룹사운드 통일 Song 경연대회 및 통일 Talk 콘서트가 시행되었다.

## IV. 대학 통일교육의 기본 전제 및 과제

### 1. 기본 전제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은 크게 명분(당위성)과 현실(실제)적인 문제들과 통일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명분과 현실을 직시하면서 기본적으로 국가관, 역사관, 대북관, 평화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대학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첫째, 국가관

한반도에는 국제적인 안보환경의 변화,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북한의 핵문제 등 안보를 위협하는 여러 요소가 항시 존재하고 있다.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이 되어야만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발전되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여전히 한반도는 남북이 대치해 있는 정국에서 전쟁이 언제든 발발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철저한 국가관 확립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우리 민족이 존속하는 한 존재해야 할 국가이다. 따라서 국가의 정체성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재성과 역사성 그리고 민족성을 아우르는 국가의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들 입장에서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부동한 인식체계가 필요하다. 아울러 대학 통일교육도 이러한 확고한 국가관 정립을 통해 작금의 한반도의 안보 현실을 정확히 이해시키고 여러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를 유지·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sup>50)</sup>

---

50) 통일부 통일교육원(2013). 2013 통일교육 지침서.

## 둘째, 역사관

우리 민족은 고유한 문화와 사상을 수호해 왔고, 외래문화와 사상의 범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완전히 편입하거나 동화되고 않고 우리 민족만의 독특한 문화, 전통, 사상을 지켜왔다.<sup>51)</sup> 우리 민족의 강인한 역사의식과 확고한 사상과 정신의 결과물이 오늘날 우리 국가이고 민족이다. 우리 역사와 정신은 다른 그 어떤 나라와 민족의 역사와 정신보다 긍지와 자부심을 조성할 정도로 자랑스러운 부분을 깊이 내재하고 있다. 대학생들에게 통일의 당위성과 의미를 제대로 부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역사와 정신에 대한 굳은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 통일교육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전개간에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신과의 일체성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요구되며, 아울러 우리의 역사와 정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믿음을 기초로 한 민족의 유구한 역사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것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셋째, 대북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있어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고 실제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국가이다. 반면, 북한은 말로는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민주주의가 지니는 기본적인 속성인 국민의 정치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민주주의 기본가치를 훼손하는 반민주정권이라는 사실이다.<sup>52)</sup> 북한은 권력장치들에 맞서는 어떠한 행동이나 저항을 용납하지 않고 철저히 관리 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은 통치구조의 기본원리로서 대의제도 원리를 수용하여 입법기관이 역할을 하는 최고인민회의와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을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있다고 하지만, 권력분립 원칙을 거부하고 일당독재체제를 수립하여 선거에 있어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황장엽에 의하면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의 위대성을 선전할 자유와 전쟁때 정권유지의 총폭탄으로 될 자유만이 강조되고, 자유의 견지에서 보면 북한은 하나의 큰 감옥이라고 언급하고 있다.<sup>53)</sup> 북한체제의 실상

51) 예를들면 실학과 동학사상은 오늘날 한국은 물론 세계사상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52) 정경환(2012). 대학통일교육의 기본전제와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통일전략학회 통일전략. 13(4).

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식의 논리와 견해로 북한체제를 판단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학 통일교육도 북한의 실상에 대한 사실적 인지 및 접근을 통해 북한 내 체제, 남북관계, 주변 세계의 흐름 등 복잡한 통일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넷째, 평화관

평화의 가치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자유라고 할 수 있다. 평화속에 기본적으로 자유가 스며있다고 할 수 있다. 자유는 인간의 자연권으로서 인간행위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을뿐더러 모든 이념과 사상의 중심적 내용과 지향점으로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54)</sup> 따라서 평화교육은 근본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더불어 사는가를 터득시키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존재하는 갈등관계를 공격성이나 배타성 및 폭력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대화와 화해 그리고 합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교육이어야 한다.<sup>55)</sup>

## 2. 대학 통일교육의 과제

대학 통일교육은 이러한 국가관, 역사관, 대북관, 평화관에 대한 기본 인식을 정립함으로써 점차적으로 확산·심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지역내 대학 통일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대학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볼 때 대학 전공과의 융·복합 교과목 편성, 교과목의 교양필수화 및 확대, 통일교육의 현장 실습화, 지역 학생 대상 통일체험 프로그램의 확대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통일교육의 내실화<sup>1</sup>: 대학 전공과의 융·복합 교과목 편성이다. 그간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관련 강의는 주로 ‘북한의 이해’, ‘북한체제론’ 혹은 ‘남북한통일정책론’, ‘남북문제연구’ 등 다소 경직된 교과목에 치중된 감이 있다. 이제 세계화에 적합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하여 통일교육의 변화에 맞추어 통일 교과목도 융·복합 체제로 교과목을 개

53) 황정엽(1999). 개인의 생명보다 귀중한 민족의 생명. 서울: 시대정신. p.30.

54) 경경환(2012). p. 182.

55) 배장오(2005). 통일교육의 새지평. 서울:서현사. p. 152.

설 및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테면, ‘통일과 환경’ 교과목(비무장지대 생태 연구 및 환경보존, 북한내 생태탐 조사, 북한내 종묘 보존, 북한의 기후변화체 대응 전략), ‘통일과 문화예술’ 교과목(남북한의 전통문화예술 비교) 등 음악, 미술, 영화, 스포츠, 패션,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통일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교재를 개발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교육의 내실화2: 교과목의 교양필수화 및 확대이다. 대학내 교양 과목이나 유관 학과의 전공과목에서 북한이나 통일을 다루는 독립된 교과목을 개설한다거나 학생들이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고 동시에 과목 선택의 폭을 넓혀 통일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 차원에서 교과목이 교양선택적 수준이 아닌 교양필수과목으로, 관련 학과에서는 전공선택이 아니라 전공필수과목으로 전환함으로써 보다 심화된 통일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통일 및 북한 관련 전공자뿐만 아니라 비전공자도 통일에 대한 관심도를 증진시키고, 전문적 지식 습득을 위해 교과목 이수를 통하여 통일 분위기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차원에서는 북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과목과 통일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과목 등을 개설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통일교육의 현장 실습화 강화이다. 통일교과목을 현장 실습화하여 학점으로 인정하거나 수료제화는 정책이다. 학기중 혹은 학기말에 가칭 통일문화기행 등 현장체험을 통한 교과목을 개설하여 실질적인 통일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등의 협조하에 판문점, 통일전망대 및 최전방 방문을 한다거나 해외 현장체험 통일현장 등을 방문하는 등 통일문화 기행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단순한 이론 습득이 아닌 실천적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 학생 대상 통일체험 프로그램의 확대이다. 통일 관련 동아리 축제, 학생 통일교육 프로그램 경연대회, 학생 통일논문대회, 통일노래 경연대회, 통일 사이버 경연대회, 통일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확대하는 것이다. 해외 통일 연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게 개발·확대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통일의식을 더욱 고취시키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외에 통일관련 학생 대상 통일체험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하거나 통일연수 및 세미나 활성화를 통하여 통일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더

불어 통일에의 관심 확대를 위하여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확고한 지원과 관심이 요구되고, 지역언론 등의 홍보역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V. 마무리

지역내에서의 통일교육은 다양한 계층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로 제주지역에서도 학교(초등, 중등, 대학 등)내에서의 통일교육과 일반시민 등 다양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학교 통일교육에서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통일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대학 및 대학생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흔히 대학<sup>56)</sup>은 진리와 자유와 정의의 전당으로써 단순히 지식을 전하고 수용하는 공간이 아닌 사회의 여론을 선도하는 세력으로 앞장설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대학은 보편적 가치<sup>57)</sup>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은 국가사회의 미래 주역으로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양적·전문적 지식을 함양하는 곳으로서 우리 주변에 둘러싸인 인간과 세계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인식을 제공하며, 대학생들 스스로 자신에 대한 주체적인 입장을 세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삶의 철학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오늘날 대학은 배움의 상아탑으로서 명실상부 국가사회를 이끌어가는 시대의 리더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국가의 미래비전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학문 전당이 되어야 한다. 결국 대학의 통일교육도 위에 열거한 것처럼 대학이 지니고 있는 참된 의미와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속에서 통일 전문가적인 식견과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미래 통일주역의 일꾼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천적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56) Karl Jaspers, *The Idea of the University*. 민준기(역)(1979). *대학의 이념*. 서울: 서문당. 칼 자스퍼스는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이에 종사하는 학자와 학생들의 집단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57)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는 자유, 인권이고 이를 기초한 민주주의는 인류전체가 추구하고 있는 보편적인 정치제도 내지 정치체제이다.

## [참고문헌]

- 박광기외(2005). 신편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통일연구원.
- 박광기(2007). 새로운 학교통일교육의 방향성 제고: 통일교육에서 통합교육으로. 시민교육연구. 한국사회과학교육학회. 제39권 제3호.
- 박광기(2012).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통일부 통일교육원.
- 박명규외(2013). 2012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안완기(2004). 대학에서의 바람직한 통일교육 방안.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국내학술회의 32.
- 이우영(1997). 대학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통일연구원. 통일연구논총 6(1).
- 정경환(2013). 대학통일교육의 기본전제와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통일전략학회. 통일전략 13(4).
- 통일부(2014). 2014 통일백서.
- KBS-한국 CNR(2014). 2014 통일인식 조사.
- 2012 제주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평가회 및 통일교육위원 워크숍. 내부자료.
- 2013 제주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평가회 및 통일교육위원 워크숍. 내부자료.
- 2015 상반기 통일교육위원 워크숍 및 제주지역 통일교육 거버넌스. 내부자료.